

큰스님 수행한담

“더불어사는 도리이죠”



1967년경 해외총본원 준비반계로 출국을 앞두고 공원에서 합승기념촬영. 뒷줄 쪽을 들고있는 청허스님 우측이 당시 총무원장 경산스님.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지냈지요. 그때는 공부의 어려움보다 노동의 고됨과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어려움에도 마음만은 편안했어요. 처음 공부하겠다고 발심했으니 만나는 모든 스님들이 부처님으로 보이고 도인처럼 보여 항상 감사하고 고마웠으며 신심이 절로 났지요. 그분들이 가라고하면 가고 오라고하면 올뿐 거부할 줄 몰랐어요. 모든 것을 수긍하는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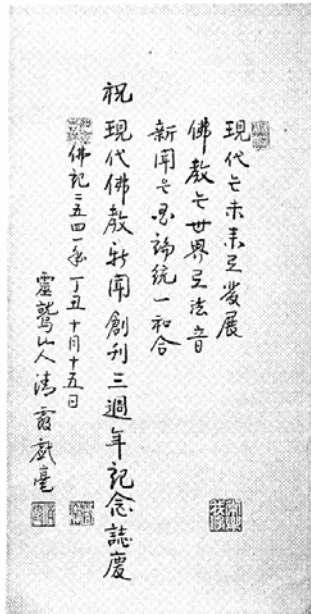
경산스님 효봉스님 해암스님 석주스님 인곡스님 무불스님 우봉스님 등 참으로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먼저 가신분들도 있지만 모두 그 시절은 어떻게 공부하고 생활하는 중에도 불퇴전의 신심이 있었습니다. 은사스님인 월하스님도 구하스님께서 편향으실 때 하루에 세 번씩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문안인사를 드리고 구하스님 입적하시기전 일주일만 한시도 결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란히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만큼 지극한 정성이셨습니다. 어른을 섬기고 잡시를 나가도 문안인사 드리는 그 당시의 엄격함과 스승과 제자간의 정은 각별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흥내조차

“욕심 없애는 불사는 게을리하고 건축 불사만 앞세우니 아쉬워요”

은 무조건 무시하고 선사나 조사들의 얘기는 구시대적이라고 하면서 서구적인 것만 우수하게 여기며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전통적인 문화, 역사를 알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인 인도도 이제는 한두교가 관을 치고 있어 옛것을 지키고 계승시키는 일은 힘이 들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다 옛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배척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시대 우리의 과제는 위축된 불교를 다시 세계속에 우뚝 세우는 일입니다. 지를갈이있어요. 그저 후학들이 우리 문화, 우리 일을 제대로 알고 현실에 구현시키는 것입니다. 그 힘은 결국 우리 한국불교가 세계불교로 뻗어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시절인연으로 인하여 모든 법이 성주 괴공의 길을 걷는 까닭에 현대는 신심이 멀어지고 욕심이 많은 때입니다. 법당 불사는 많아지지만 마음의 욕심을 없애는 불사는 게을리한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물질인 건축물들은 아무리 많이 지어봤자 대포 한 방이면 다 날아가버리고 마는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정신이 일



현대불교 창간 3주년 축하회초

입하는 것입니다. 금강석같은 각오로 덩벼들어 공부에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수행방법을 정해 정진하는 겁니다. 염불 주력 등 실천적인 방법을 통해 부지런히 수행해야 합니다. 후자는 염불과 선을 따로 보기도 하지만 지극하게 하다보면 결국엔 통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거창하고 큰것에서 찾지 말고 하루에 <천수경> 일독이라도 하는 것으로 출발해 보세요.

그 <천수경> 일독이 마음을 비워나가는 방법이 될겁니다. 그 맑은 자리에서 보면 보살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남녀노소 모두가 문수보살이요, 관세음보살이며 부처인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을 부처로 섬기면서 나의 불편과 고통이 다른이의 기쁨과 편안함에 밀려들어 버린다는 것을 명심하고 생활하는 겁니다. 자신이 남에게 깨가 되지 않고 깨가 되어 살아가는 자세를 밝히며 살아갑니다.

정리=침희회 기자

나의 경전



25

화엄경



김지건 대한전통불교연구원장

남쪽으로 밀리던 피난 길의 종착지 부산, 거기에 임시 수도가 있었다. 6.25의 민족 대수난을 겪는 것은 스님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스님들이 큰 회상을 이루었으니 그곳이 선암사 선방이었다. 여법한 청규는 서릿발처럼 엄했고, 용맹정진하는 모습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장관이었다. 그런 분위기속에서 행자교육은 법다웠다. 경전을 읽는 것은

하고 모든 의식이 집행될 때에 신라 의상스님이 지으신 법성계로 회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화엄경>으로 시작해서 <화엄경>으로 회향하는 것이다. 의식은 종교의 생명이라고 볼 때, 한국불교에 있어서 <화엄경>은 매우 중요한 경이 아닐 수 없다. 강원의 커리큘럼에는 <초심문>으로 시작해서 <화엄경>으로 마치게 된다. 그리고 한국의 세계적인 명산 금강산의 산 이름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모두가 <화엄경>에서 유래한 명명임을 알 수 있다. 즉 <80화엄경>의 보살주처품에 나오는 법기보살이 천이 백 대중과 함께 설법하는 도량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한다. 한국인은 자연에 다 인간의 위치를 정하고 자연과 동화하고 나아가 탄도건곤하는 활발한 심성을 가꾸어 온 것이다. <화엄경>과 관계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도 한량이 없다.

선재동자 구도과정 수행자의 모범 “티끌 하나 하나에서 화엄법계본다”

한 불립문자를 표방하던 그 환경에서 왜 행원품을 읽어보라고 권해주셨던지, 고를 알았다.

나는 그때부터 행원품에 나오는 선재동자가 다름아닌 나자신이라고 느껴지고, 그 실천을 위해서 틀이 흐르듯이 살아오게 되었다.

<화엄경>은 대승경전 중에서도 교학적, 사상적으로 불교의 핵심을 가장 깊게 담고 있다. <대방광불화엄경>의 약칭으로 각 장이 독립된 경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4세기경에 집대성했다. 한역에는 6권이 있으나 지금은 3본만 전해오고 있다. <60화엄> <80화엄> <40화엄>이 그것이다. 특히 <화엄경>의 입법계품은 선재동자가 보살에서 의도에 이르기까지 53인의 선지식을 찾아 구도하는 과정을 묘사해 정진이 곧 불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만나는 선지식 중에는 보살만이 아니라 비구(나)의 의자 장자 바라문 천녀들 갖가지의 직업과 신분들 가진 사람들이 섞여있다. 이는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보리심의 유무가 문제라는 대승불교의 수도(修道)의 이상(理想)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우리한국불교는 여명을 알리는 아침 종송(鐘頌)이 <화엄경>으로부터 시작

진역 <화엄경소>를 지어가시던 원효 스님은 심회행품에서 절필하시고 다음 지, 고를 알았다.

“봉황이 푸른 구름을 타고 올라 산악의 낮은 내리다뚝과 같이 하백(河伯)이 넓은 바다에 이르러 좁았던 시냇물을 회상하는 것처럼 배우는 자가 <화엄경>의 문에 들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확 트이는 공부라 되지 못했음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화엄경>은 모자람 없이 완전한 진리의 세계가 공간적으로 막 차고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걸쳐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하는 지극한 법도와 공구의 표준을 이루었나니 그 뜻을 들어 표제삼아 <대방광불 화엄경>이라 한다”라고 설파했다.

그리고 설장스님(매월당 김시습)은 “보지 못하였는가, 화엄법계의 티끌 하나 하나에서 법계를 본다고 하였음을, 여러분은 대체 보고 있는 것인가. 지금이 자리 산승의 염주위에 실증현문이 열려 있고, 진법계가 드러나 있음을... 세존은 7회에, 나는 단지 여기 1처일 뿐이요, 세존의 9회에 나는 단지 1회일 뿐이요, 세존의 경을 설한 것이 80권임에, 나는 단지 일구(一勾)일 뿐이다”라고 선적인 회통을 했다.

오계만 제대로 지키고 살면 세상 순탄

“나의 불편이 다른사람 기쁨의 밑거름”

은 스님 몇몇만 있고 뿔뿔히 흩어져 공부처를 찾아 다녀야만 했어요. 나도 풍도사에서 공부할 여건이 없애 부산의 금정사와 범어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범어사도 사정이 별반 다른 것은 아니어서 범어사 바로 밑의 유골안치소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전생이 다시는 이 세상에 없어야겠다는 원이 생깁니다. 인류가 평화롭고 남북이 통일되어야 제대로 사는 것이지 지금은 온전하게 산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때의 고생스러움에 비하면 요즘 세대는 너무 어려움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편해졌음에도 공부하려 왔던 이들이 두려워서 지 않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이들이 적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당시 같이 공부하던 스승들과 도반들로는

내기 어려운 일이지요. 월하스님은 참 엄격하고 한번 마음먹으면 무슨 일이든 맡아부치는 분입니다. 나는 어릴적 월하스님의 그러한 점을 보면서 ‘아, 한 번 마음먹은 것은 꼭 해야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뜻이 밀고 나가야겠구나’하고 다짐했습니다. 그 당시의 꾸지람도 나를 지금껏 바르게 살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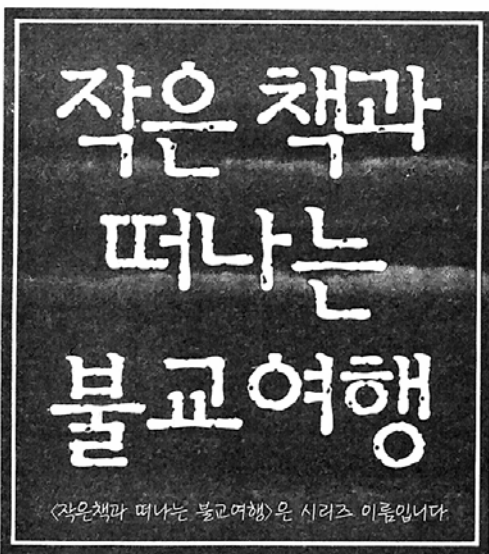
그런데 요즘은 출가자들 사이에서도 세속의 경향처럼 너무 신식만 찾는 것 같습니다. 젊음중 일수록 더욱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은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 선사 조사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발자취를 더듬어 참고하고 좋은점은 본받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세대는 과거것

아너려고 하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얼마나 단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나의 원(願)은 불교를 만든 안민돈 인류가 평화로운 마음들로 가득해져 자연스레 지상정토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파멸심을 없애고 욕심을 없애고 화합하고 하나가 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욕심을 끊고 화합하는 첫출발은 바로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와 선의 요체이기도 합니다. 자꾸 비우다 보면 결국엔 나라는 꼬투리마저 없어지고 착과 두려움조차 없어져 버립니다. 일어나는 한 생각이라도 떨쳐버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단계가 달마대사의 9년 면벽과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 앉아 깨닫기 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신 그 마음으로

주머니 속에 넣고 떠나는 나의 작은 책!

책은 나의 발견자, 삶의 동반자!



값 3,500원 / 46면, 각권 180~220쪽

만족하는 외형만 크고 내용은 빈약한 함량미달의 책 대신에 독자들에게 실속 있는 독서풍토를 만들고자 <작은책과 떠나는 불교여행> 총서를 간행하여 지식의 대중화,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1 새벽 삭발 석성우 스님 시인·파계사 주지

오랫동안 수행에 전념해 온 석성우 스님의 마음자리 말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읽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마음을 찾게 해준다.



2 선 석치현 스님 시인

선(禪)은 나를 찾아 떠나는 길이다. 가능하면 이 책과 함께 매일매일 좌선의 자세로 앉아 보라. 그대의 의식은 비로소 그대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될 것이다.



3 인연 석정주 시인

서정적 생명력이 있는 미당 서정주의 시와 산문들! 그의 시와 글 곳곳에 박혀 있는 산사의 향수. 우리로 하여금 아련한 추억과 마음의 고향을 되찾게 해준다.



4 한국의 茶詩 김상현 동국대학교수

초의선사를 비롯하여 유명 다인들의 다시를 엮은 책. 한 잔의 차로써 다산일미(茶禪一味)의 맛과 세계를 감상한다. 그들의 삶을 통해 한걸 더 넓히고 여유로운 일상을 가질 것이다.



5 보려고 하는 놈이 누구냐 최인호 소설가

금세기 우리 문단의 최고의 작가 최인호! 경허의 세 계자 수월·해월·만공의 ‘참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최인호 특유의 독특한 문체로 그린 선소설!



6 곰취처럼 살고 싶다 윤후명 소설가

한국소설대학에서 작가 지망생을 지도하고 있는 윤후명 불교산문집. 봄의 들길에서 출발하여 가을 향명한 바닷가까지의 여정을 쓸쓸하지만 아름답게 보여준다.



7 불교문학의 이해 홍기삼 문학평론가

문학평론가 홍기삼! 불교와 문학의 만남을 통하여 감동과 비평의 언어로써 새로운 인간학을 지향한다.



8 사천강단(四川講壇) 민영규 연세대학교수

어느 노학자의 선불교 탐방! 쇠보다 강한 것은 무엇인가가 미생전(未生前), 우리를 그렇게 매어 놓은 것이라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